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3 사천~울산

〈하〉



편집 | 양해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새콤한 국물+쫄깃한 면발+아삭한 김치...

'인디언 서머' 날려준 시원한 '열무김치국수'

집단가출 전국일주 자전거 여행에 있어서 '어떤 코스를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참여할 각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바퀴는 동글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막상 갈림길 앞에 서면 예외 없이 이리 갈까, 아니면 저리 갈까 오만가지 생각으로 심경이 복잡해지고 만다.

허영만 화백을 필두로 집단가출 멤버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영토 외곽선에 단절 없는 자전거 바퀴자국을 새기겠다는 것. 그러나 들쭉날쭉 복잡한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섭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1년간 2000km 남짓 페달링으로 이어온 궤적은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들을 점점이 연결한 선이지만 돌이켜보면 택하지 않은 길, 어쩔 수 없이 버린 길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집요하게 오라 손짓하는 소매물도
'가보고 싶은 섬'이라니 가보자, 26km 온 길 되돌아

거친 바위섬, 자전거는 두고가란 말에 생고집
이고지고 생고생...20분도 안 될 거리 1시간20분 걸려
관광객 "대단하다" 감탄사에 속탄 시커멓게 타

●'집단가출' 멤버 유혹한 소매물도...자전거 고집하다 '생고생'

거제도 동쪽 14번 해안도로를 달려 지세포 거제요트학교 옆에서 때늦은 가을 모기에 시달리며 야영하던 밤, 소매물도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했다.

마산 창원원의 내륙 코스 대신 거제도를 돌고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으로 진입하려는 계획 하에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를 지날 때 가을 햇살 가득한 쪽빛 남해의 수평선 위에 한 송이 작은 꽃인 양 함초롬하게 떠있던 소매물도는 이미 버린 길에 속한 곳이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거제도 남쪽 끝 저구항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이미 낮에 저구항을 지나온 것이다. 그런 소매물도가 이튿날 달릴 육포~율숙도~부산 코스를 검토하기 위해 펼쳐놓은 지도 위에서 모하게 자꾸만 눈에 밟힌다.

앞으로 갈 길도 먼데 지나온 길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도 '가보고 싶은 섬' 베스트10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지적인데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아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어 논쟁 끝에 결국 들르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아침 26km 거리를 되짚어 돌아간 저구항. 매표소 직원이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우리들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한다. "소매물도는 아주 작은 섬인데다 지형이 험해서 자전거 탈만한 곳이 없어요. 자전거는 두고 갔다 오세요."

자전거 여행 중인 우리들에게 자전거를 포기하라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어코 갖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매표소 직원은 수차례 만류 끝에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거냐?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고 혀를 끌끌 차며 표를 내준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쯤에서 매표소 직원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떠났어야 했다. 40여분 뒤 소매물도에 상륙하자 이번엔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돕는 아저씨가 "여기에 자전거를 가져오다니 제 정신이나?"는 지청구와 함께 선창에 자



그 흔한 상호 하나 없는 국수집에 출현 듯 들어가 열무김치국수에 동동주 한사발 걸치니 가을별 더위에 맺힌 땀이 절로 식는다. 이 곳은 동해 남부를 여행하는 라이더들에게 좋은 식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전거를 묶어두고 맨몸으로 다녀오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했던가? 일행 중 누구도 소매물도에 와본 적이 없는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자전거 놔두고 가라는 말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

매물도 선착장 정면의 가파른 계단은 척 보기에도 자전거로 오를 수 없는 길이었는데 다행히 왼쪽으로 적절해 보이는 오솔길이 뻗어있어 앞뒤 짚 없이 기세 좋게 올라붙었다.

소매물도 북동 해안의 우회로인 이 길은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웠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1km도 안돼서 뼈죽뼈죽 튀어나온 바위와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자전거를 들고 메고 끌고 가면서도 가끔 나타나는 짧은 라이딩 가능 구간들은 조금만 더 견디면 신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 23면 '자전거 식객'으로 이어집니다

제 110905-등-23653

넘버원 남성의원
넘버원 (No.1) 비뇨기과의원

진료내용: 남성수술

귀두/음경확대술 **길이연장** **조루수술**
바세린제거 **포경/정관수술** **발기부전수술**

조루, 발기부전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하십시오!

※ 24시 상담
※ 합리적 비용

넘버원 남성의원 백석역 5번출구 031-903-9199
넘버원 (No.1) 비뇨기과 의원 중앙역 앞 031-475-7275
넘버원 (No.1) 의원 종각역 11번출구 02-927-7582

네이버 **넘버원남성의원** 검색

ManClinic **비뇨기과** **맨남성의원**

진료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21개** **지점** **1577-7574**

발기부전 (원터치/음경확대/정관수술)
귀두/음경확대 **21개** **지점**

강남신사역 02-592-2220 인 천 032-439-0007
신사역 1번출구 영동출입 역 02-592-2220 신세계백화점점 영동출입 역
청량리역 02-963-2182 부 천 역 032-657-0008
청량리역 4번출구 영동출입 역 부천역 대성병원점 영동출입 역
연신내역 02-387-3939 분 당 031-707-7533
연신내역 4번출구 영동출입 역 분당시현역 6번출구 영동출입 역
신도림역 02-3439-7582 안양 평촌 031-421-6119
신도림역 1번출구 영동출입 역 안양역 4번출구(롯데리안점 4층) 영동출입 역
천 호 역 02-477-3477 수 원 역 031-255-7582
천호역8번출구 브라온스톤점 영동출입 역 수원역 2.8번 출구 영동출입 역
안 산 031-413-3555
교진동 2001아울렛 뒤 영동출입 역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터미널 사거리 영동출입 역
대 전 042-484-7373
경리리아울렛점 영동출입 역 영동출입 역
전 주 063-252-4000
전북은행 본점 영동출입 역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영동출입 역
여수 순천 061-721-2555
조례동 조례삼거리 영동출입 역
대 구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영동출입 역
상원동 스타타워점 302호 영동출입 역
울 산 052-227-7332
공업발트리 우리은행점 영동출입 역
부산시내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청우점 4층 영동출입 역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영동출입 역

www.manclinic.co.kr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번호: 제 09-09-459호
광고심의번호 2010-GNI-02-0006

신제품 출시 **'베스트원맨'** 하루 3분!
엄격한 기준 통과한 의료기기

성기동맥 혈류충전기!

의료기 4등급
베스트원맨!

자동식·충전식·저소음·휴대 간편

중양바이오메디칼은 최근 하루 3분 꾸준히 사용하면 남성 혈액유입장해를 개선하는 의료기기 "베스트원맨"을 출시했다. 음경 해면체의 혈액유입 장애를 개선해 여러가지 원인으로 고개 숙인 남성들의 자존심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자동식으로 소음과 부피가 작아져 디자인이 한층 좋아졌다. 콤팩트한 디자인에 크기도 작고 소음도 거의 없다. 본체 충전으로 사용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예 발기가 안 된다거나 중간에 시들어버리는 남성들에게 알맞은 제품이다. 스트레스·흡연·음주 등으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남성들은 베스트원맨의 효과를 특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판매) 중양바이오메디칼 | 070-7777-7890

발기콜, 오르가즘콜

▶ 발기원리= 병원에서 성기속으로 봉입플랜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고, 발기콜은 성기귀두와 몸통일부분은 안 덮여지고, 고환쪽 성기 몸통 일부분에 콘돔토 시를 끼우고, 토시속으로 봉입플라트가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80대, 성기확대자, 조루증 환자, 완전발기불능자도 즉시 발기되고 통증 없고 감각 좋고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까지 사정해도 시들지 않고 4시간 발기가 지속되어 아내의 불면증, 우울증, 배설, 의부증, 의처증 없어진다.

▶ 즉시 발기 안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 보장.
▶ 링, 반지, 오링, 성기혈류충전기(펌프)처럼 성기부위를 아프게 조이고 성기혈액을 흡사시켜서 영원한 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 아니다.
▶ 끓는 물에 녹는 가짜실리콘 발기콘돔은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성기와 자궁에 질병과 암발병을 유발시키므로 사용하면 남, 녀 모두 해가된다.
▶ 발기콜은 옳은 물에 소독하는 진짜 실리콘 제품이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허품(반영구적)
※ 발기약 안먹고 즉시 발기된다.
※ 표시나지 않고, 자연발기와 똑같아서 아내도 속는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임금: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